

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02. 6454-4873

kiyeon.bae@meritz.co.kr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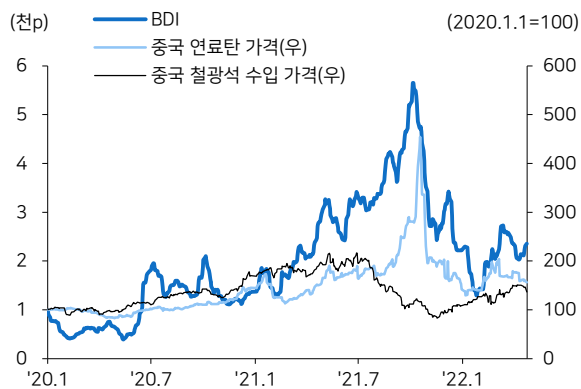
2022. 4. 26 (화)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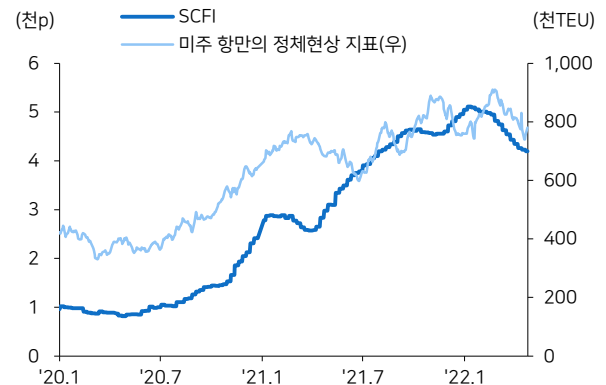
## 건화물운임(BDI)

2,356p(+49.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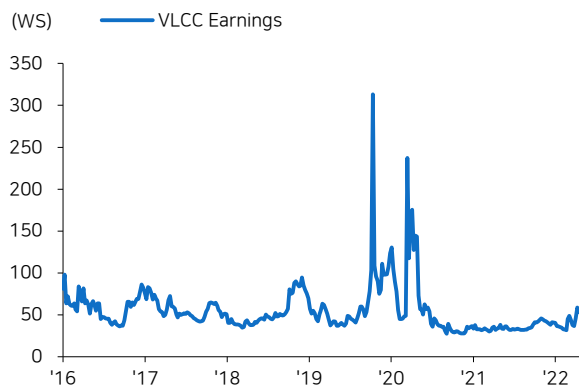
## 컨테이너운임(SCFI)

4,196.0(-32.7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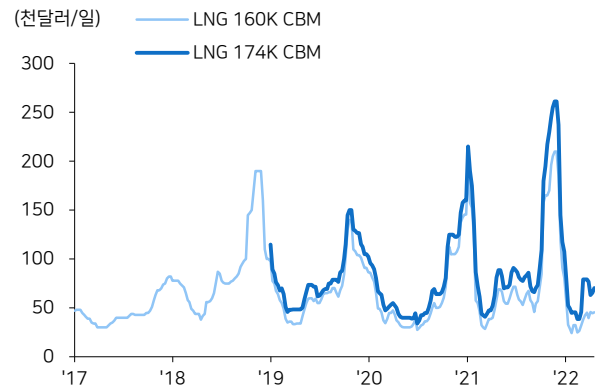


##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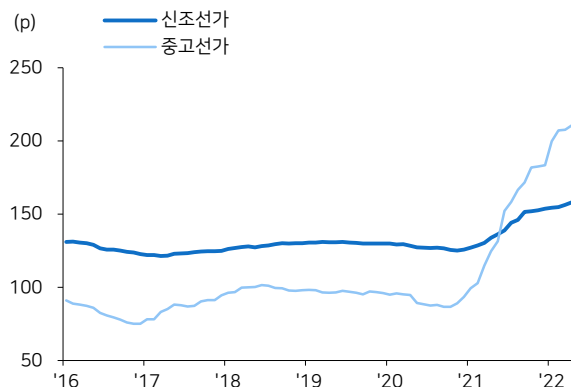
51.9p(-2.7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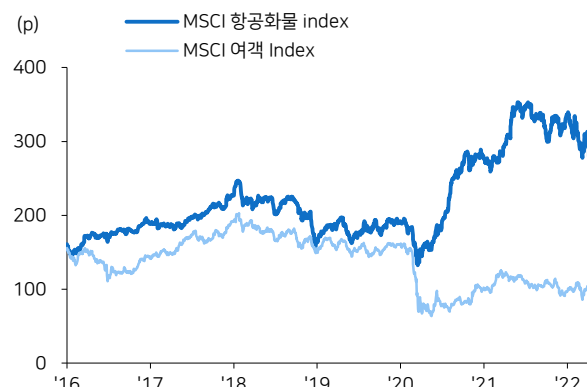
## LNG Spot 운임

45.5p(+1.0p WoW)  
70.5p(+5.0p WoW)

##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8.0p(-0.1p WoW)  
210.7p(+0.2p WoW)

## 항공시장 지표

269.2p(-)  
104.2p(-)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Longer voyages to protect shipping from economic contraction, Clarksons Platou says

글로벌 경기성장세 둔화에 따른 교역량 감소에도 톤마일증가로 해운시장은 방어될 것으로 보도됨. IMF는 2022년 글로벌 경기성장률 전망을 4.4%에서 3.6%로 하향했는데, 지난 10년간 벌크 및 탱커 교역량은 글로벌 GDP성장률의 0.9배 수준으로 성장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2022년 교역량은 0.9% 가량 감소가 전망되지만, 채선, 톤마일 증가 등으로 타이탄 시장은 유지될 것으로 보임. 한편, 중국 봉쇄 해제 시 하반기 브라질 철광석 수입량 증가전망으로 FFA 시장은 긍정적 양상임. (Tradewinds)

## China promotes coal in setback for efforts to cut emissions

중국이 경기회복을 위해 2022년 석탄생산과 석탄 화력발전을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됨. 석탄 3억톤을 추가 생산하는데, 2021년 생산량 기준 7%에 해당됨. 2021년 4분기 경기성장세가 꺾이고 석탄 부족으로 주요 산업지역의 단전과 공장가동중단 사태를 겪고 다시 석탄 화력발전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설명됨. (AP News)

## 아시아나항공, 5월 국제선 주 18회 증편 운항

아시아나항공이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 해제와 국제선 정상화 계획에 맞춰 다음달부터 미주·아시아 등의 9개 노선에서 주 18회 증편해 운항한다고 보도됨. COVID-19 이후 월간 최대 증편임. 장거리 노선은 인천~LA구간 운항을 주 4회 늘려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같은 1일 2회 운항함. 아시아 지역 노선 운항도 일본 인천~오사카 노선 주 2회 증편, 인천~후쿠오카도 주 1회 증편함. 특히 4월 29일부터 인도 델리 노선의 주 1회 운항도 재개됨. (에어진)

## Petronas signs for \$2 billion new floating LNG project

말레이시아 Petronas와 Sabah Oil & Gas Development Corporation (SOGDC)가 말레이시아의 첫 FLNG를 건조한다고 보도됨. 연간 최소 200톤 LNG를 생산하는 해당 FLNG프로젝트(ZLNG)는 약 20.3억달러규모로 보도됨. 삼성중공업은 일본 엔지니어링 업체인 JGC와 손잡고 FEED계약을 진행함. 입찰 성공 시 EPC계약을 수주할 수 있음. (Upstream)

## 포스코 "이번주 조선3사와 후판 협상 마무리... 원료가격 반영"

포스코는 이번 주 중으로 조선3사와 후판 가격 협상을 완료할 것이라고 보도됨. 포스코는 2분기 주요 완성차 업체, 가전업체, 재업연사, 강관사 등과 가격인상을 마무리했고, 2분기 실적도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조선업계는 반기 단위로 후판 가격을 협상하는데, 2021년 후판 가격이 톤당 50만원가량 올랐던 만큼 올해 상반기 동결을 주장했으나, 철강업계는 철광석 가격 인상 등을 고려해 톤당 10만원 이상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짐. (조선Biz)

## 대우조선 협력업체 노동자 5백여 명 파업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20여곳의 노동자 500여명이 4월 25일부터 전면파업이 들어갔다고 보도됨.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30% 인상하고, 도장 작업 노동자들의 재계약을 해줄 때까지 파업할 계획으로 알려짐. (KBS뉴스)